

# 연길, DNA 추출 통해 23년전 살인사건 해명

23년전 연길시의 한 려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 41세 여성이 숨졌다. 현장에는 많은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당시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로 범인의 신원이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최근 2년간 연길 시공안국당위는 '살인사건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요구를 관철하여 단서를 깊이 파고들며 오래된 살인사건 해결에 전력을 다했다.

지난해말, 진범 임모(가명)가 나포되면서 23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었다.

## 방안의 비극과 '사라진' 살인범

2003년 3월, 연길 경찰은 한 려관에서 여성이 사망된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살인 현장은 매우 어수선했고 박투를 한 흔적이 뚜렷했으며 피해자는 피땀에 쓰러져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려관 직원으로 당시 41세였다. 피해자가 있던 층에는 총 3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방에 숨겨있었다. 현장 수사 상황으로 보아 범인은 남성으로 피해자 옆방에 묵고 있었으며 살인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손까지 씻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현장에 서 담배꽂초, 양말을 신은 채 남긴 범

인의 피 발자국, 반쪽 혈흔 지문, 피해자가 떨어진 손목시계 등 물품을 채취했고 사건 현장 주변에서 크기가 다른 검은 장갑 각각 한켠레를 발견했습니다." 연길시공안국 형사범죄수사대대 기술중대 경찰 오홍전은 이같이 설명했다. 현장의 다양한 흔적과 피해자의 손목시계가 의뢰에 의해 잡아 뜯겨 떨어진 상황을 고려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의 살인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당시 려관과 주변에는 감시카메라가 없어 수사팀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하고 사건 현장 근처에서 대량의 수사를 통해 관련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당시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는 복잡하지 않았고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 그에게는 범행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홍전은 "그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의 대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 장갑 속의 각질과 가족 DNA

대조사건 해결의 전환점은 지난해 9월에 나타났다. 전 성 살인사건 집중 해결 작전이 시작된 후 이 사건은 길림성 감독사건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연길시공안국은 신속히 수사팀을 재구성하고 정예 인력을 차출해 사건 해결에 나섰다.

오홍전은 다시 사건의 수사 기록과

누렇게 변한 물증 봉투를 열고 사건 상황과 남아있는 물증, 검체를 재정리했다. 그는 검은 장갑과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장갑이 범인의 것이라면 그 안에 그의 각질이 있을지도 모른다!' 오홍전은 즉시 증거물을 주공안국 물증감정실험실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 남성의 완전한 DNA 정보를 성공적으로 추출해냈다. 사건 해결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 대조후 두 가지 관련된 단서가 확인되었다. 현장의 손목시계, 담배꽂초, 화장실 혈흔 등 검체에서 추출된 DNA는 대조 결과 모두 동일 인물의 것으로 임씨(가명) 가족 남성 구성원과 관련이 있었다. 검은 장갑 끝부분에서 추출된 인체 각질 DNA는 연길시 여성 임모와 높은 일치률을 보였다. "범인은 임씨 가족의 남성입니다!"라고 오홍전은 흥분해 말했다.

친족관계가 확인된 후 수사팀은 신속히 작전을 배치하고 임씨 가문의 여러 세대 구성원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대조 결과 3대 세대중 임모의 DNA 정보가 사건 현장에서 추출된 DNA 정보와 완전히 일치했다.

23년간 '사라졌던' 범인이 마침내 수면으로 떠올랐다. 임모는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두 및 연길시 공안부문에서 공동수사팀을 묶어 집중공세를 펼치자 마침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 당일 밤, 그는 음주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경찰의 검문을 만났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는 오토바이를 그 자리에 버리고 도망쳤다.

이후 그는 피해자가 있는 려관에 가서 20원 보증금을 내고 잠시 머물렀다. 한밤중에 술이 깨자 그는 이제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찾아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오토바이도 없어지고 20원도 잃었다." 방으로 돌아온 임모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악념이 생긴 그는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과일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임모는 칼로 피해자를 20여차례 미친 듯이 찌른 후 도주했다.

임모는 사건이 2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모든 증거나 흔적이 이미 효과를 잃었을 것이라고 경찰도 더 이상 추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공안기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사수사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장갑 속에 숨겨져있던 좁쌀알 만한 크기의 피부 조각이 결국 그를 범의 재판대에 세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연변일보

# 시로 연예인 '설인사' 영상 생성한 업체 침권 배상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외식업체가 마케팅 홍보를 위해 자사 미디어 플랫폼 계정에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연예인 손모모(孙某某)의 설인사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손모모의 이름, 초상, 그리고 AI 기술로 처리된 목소리까지 사용되었다. 최근 성도철도운수제1법원은 이 성명권, 초상권 및 음성 보호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해당 외식업체와 그 경영자에 침권 책임 부담 판결을 내렸다.

2024년 2월, 한 외식업체는 미디어 플랫폼 계정을 통해 동영상 상을 게시했는데 AI로 합성한 손모모의 모습과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설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손모모의 이름과 업체 브랜드 홍보가 명확히 포함되어있었다. 손모모는 해당 영상이 자신의 허가 없이 게재되어 대중이 자신과 업체간에 광고 모델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도록 유도했다며 성명권, 초상권 및 음성 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후 사건 관련 영상 속 초상이 손모모 본인의 모습과 일치하고 피고인들이 손모모의 초상과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손모모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음성 침해 여부에 대해 법원은 "자연인의 음성 권의 보호는 '식별 가능성'이 핵심 기준"이라며 AI로 합성된 음성이라도 손모모 고유의 음성, 억양, 발음 리듬 등이 유지돼 일반 대중이 그를 식별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심리후 사건 관련 영상 속 초상이 손모모 본인의 모습과 일치하고 피고인들이 손모모의 초상과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손모모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심리후 사건 관련 영상 속 초상이 손모모 본인의 모습과 일치하고 피고인들이 손모모의 초상과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손모모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심리후 사건 관련 영상 속 초상이 손모모 본인의 모습과 일치하고 피고인들이 손모모의 초상과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나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손모모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분석 및 시사점

최근 몇년간 AI 기술의 보급으로 AI 합성 음성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지면서 AI 기술로 연예인 목소리를 합성하여 설인사 영상 제작,

상품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상인과 개인은 조회수 확보와 마케팅 선점을 위해 무단으로 이러한 합성 콘텐츠를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권리 수호 소송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침해 행위와 비교할 때 생성형 AI는 자물성, 불투명성, 상호작용성 등 현저한 특징을 가지며 그 기술 생성 과정의 복잡성은 사법 실무에서 침해 판단에 일정한 어려움을 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인의 음성이 AI 기술 처리 후 음성 권의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별 가능성' 원칙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일반 대중 또는 해당 자연인의 음성 특징을 아는 특정 범위의 대중이 합성 음성의 음성, 억양, 발음 리듬(发音节奏) 및 언어 스타일 등 핵심 특징을 통해 해당 특정 자연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해당 음성이 기술적으로 최적화되거나 변형되었다고 그 자연인의 음성 권익은 해당 AI 생성 음성에도 미치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어떠한 기술혁신도 법적 한계를 넘어서 수 없으며 어떠한 상업적 홍보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대중 특히 각종 시장주체와 상인들은 소위 '재미'나 '오락'을 위한 AI 합성 영상을 제작하고 사용할 때 반드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트래픽(流量)'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항상 타인의 인격 권익을 존중하고 상업도덕과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온라인 공간과 시장 환경을 함께 조성하며 AI 기술의 선한 발전을 촉진하여 업계의 질서 있고 규범적이며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법원넷

# 어제 밤 술 마셨는데 오늘 운전해도 괜찮을까?

명절 때면 가족·친구들과의 모임이 잦아진다. 즐거운 술자리도 좋지만 안전 운전은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조금 마셨으니 운전엔 지장 없을 것이다', '전날 밤에 마신 술은 음주운전으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잠에서 깬다고 해서 알콜이 완전히 분해된 것은 아니다!

## '격찬주', '격야주'란?

'격찬주'(隔夜酒), '격야주'(隔夜酒)란 점심이나 저녁 음주후 일정 시간 휴식하거나 자고 난 뒤 알콜이 완전히 대사되었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는 '몸은 깬지만 알콜은 몸에 남아있음' 상태일 수 있다.

알콜 대사 속도는 음주량, 체중, 성별, 대사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동일한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대사 속도가 변할 수 있어 하루밤이 지나도 체내 알콜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명절 전후 밀집된 모임에서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즉시 운전하지 말고 알콜측정기로 자가검사를 하거나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운전해야 한다.

## '격야주' 대처법

■ 음주후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

운전함으로써 신체가 알콜을 완전히 분해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고 운전 판단력과 반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잔여 알콜을 피해야 한다.

■ 출발전 휴대용 알콜측정기로 정밀 측정하여 혈중 알콜 농도가 20mg/100ml 미만인 것을 확인후 운전자야 한다.

■ 대리운전 써비스나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음주운전 위험을 피해야 한다.

## 오해 1: '조금 마셨으니까 운전하는 데 지장 없을거야'

진실: 이는 '명백한 취한 증상이 없다'를 '안전 운전 능력이 있다'와 혼동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국가 <차량 운전자 혈중·호흡 알콜 농도 측정 및 기준>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만취운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혈중 알콜 농도 ≥ 20mg/100ml, ≤ 80mg/100ml 인 경우 음주운전 행위로, 혈중 알콜 농도 ≥ 80mg/100ml 인 경우 만취운전 행위로 판단한다. 알콜이 인체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에 직접 영향을 미쳐 판단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조작 협응성(协调性) 저하를 초래하며 두통이나 피로감 같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운전 능력은 이미 실질적으로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 오해 2: '차를 밀면 음주운전은 피할 수 있기에 위법 아니야'

진실: 이 방법은 차를 미는 행위가 도로 통행에 미치는 영향과 술 마신 후 체력 저하 및 반응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간과하고 있다. 법적 정의(定义)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음주후 상태', '운전행위',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차를 밀 경우, 차량의 핵심 부품을 조작하는 사람이 없고 차량이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피하려는 의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인체 반응이 느려지고 체력이 떨어져 차를 밀 때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하거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만약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 오해 3: '술 마신 후 아파트단지 내에서 차를 옮기는 행위는 위법 아니야'

진실: 이 행위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의 공공 통행 속성과 조작 판단에 미치는 알콜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법률이 규정하는 '도로'는 도로(公路)와 도시 도로뿐

만 아니라 사회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단체 관할구역, 개방형 주민단지, 공중주차장 등을 포함한다. 술을 마신 후 아파트단지내에서 차를 옮기는 행위는 거리가 가깝고 환경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더라도 여전히 사회적 위험성을 지니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사법 실무에서 이러한 행위는 상황이 아주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여전히 도로교통안전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증 정지, 벌금 등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 오해 4: '계란빵을 먹으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돼'

진실: 계란빵(蛋黄派)을 먹어 호기식(呼气式) 측정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음주운전'(假性酒驾)이다. 계란빵은 제조 공정상 방부제로 식용 알콜을 첨가해야 하기에 섭취후 알콜이 일시적으로 입안에 잔류하게 되지만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보통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증발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음주운전과 만취운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검사 결과이지 호기식 측정기의 예비 검사 데이터가 아니다. 계란빵처럼 미량의 알콜이 포함된 음식은 혈중 알콜 농도를 높이지 않으며 따라서 법적 의미의 음주운전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치일보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명절 기간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식품 생산·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2월 중순부터 보름맞이 식품안전 특별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3월초까지 지속되는데 원소(元宵)와 탕원(汤圆) 등 명절 소비 인기 품목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명절 식품안전 방어선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글 김명준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图说  
我们的  
价值观

# 勤善为本 吉福满门

河南舞阳 张新亮作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